

美 “농산물 고위급 회담 열자”

한미 FTA 이틀째…섬유시장 개방 공방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 이틀째인 16일 양측은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인 농산물과 섬유 시장을 놓고 장내외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쳤다.

농업 분야에서 우리측은 민감 농산물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는 기조로 협상에 임해 기타품목 235개를 포함해 의견차가 있는 총 500여개 미합의 쟁점품목에 대해 미국과 절충점을 모색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했으나 특별한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아직까지는 우리측이 구체적인 관세 양허(개방) 폭 수준을 미국에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500여 미합의 쟁점품목 절충 못 찾아

배종하 한미FTA 농업분과장은 “쌀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소개한 뒤 “미국은 종전부터 그랬듯이 이번에도 고위급 협상을 원한다”며 “막판으로 가면 (농업분야의 고위급 협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측이 공세를 펴는 섬유 분야에서는 이제훈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장이 스캇 위젠베리 미국 무역대표부 수석협상관을 만나 작년 12월에 이어 2번째 고위급 회의를 진행했다.

17일부터 열리는 섬유분과에 앞서 고위급간의 사전조율을

시도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섬유 관세 철폐와 함께 미국의 까다로운 섬유 원산지 기준인 ‘안 포워드’ 규정의 완화 등 협상의 기본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벌였다.

한편 미국은 이날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국경간 금융거래 개방대상에 신용평가업을 포함시켜줄 것을 처음으로 요구했으나 우리측은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신용평가업의 국경간 거래가 허용되면 스텠더드 앤드 푸어스나 무디스 등을 비롯해 미국에 기반을 둔 신용평가업체들은 국내에 법인이나 지점을 두지 않고도 국내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신용평가업무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부예금의 은행에 차와 국고채 인수 프라이머리 딜러, 국고수납대리점 등 정부의 금융서비스 조달을 국제입찰에 불

美 “신용평가업도 개방하라”

여달라는 요구를 미측이 제시했으며 우리측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와 웨니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는 이 날도 비공식회의를 갖고 무역구제 등 분야의 협상을 중단된 핵심 쟁점 분야의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벌였다.

/연합뉴스



한미 FTA 협상 김종훈 수석대표와 웨니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가 16일 오후 신라호텔에서 수석대표간 협상을 가진 후 모처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수근 이중간첩 사건은 中情 조작”

“가혹행위·형사절차 등 위반”

과거사위, 국가에 재심 권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16일 김일성 수행기자 출신의 이수근이 위장귀순했다는 국가 기밀을 북에 누설하고 한국을 탈출한 혐의로 처형된 사건이 중앙정보부에 의해 조작됐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중정이 조사과정에서 이수근을 불법감금하고 자백에 의존해 무리하게 기소한 점,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한 점 등에 대해 유족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국가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수근이 숙청을 피해 북한을 탈출했다는 초기 진술서가 수사기록에서 사라지고 위장귀순이었다는 진술서로 대체됐으면 변호사나 가족 면회가 금지됐고 자백과 부인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춰 증정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가혹행위나 강요가 있었고 이로 인해 허위로 자백했을 가능성성이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 사건은 이수근의 자백에 의존했는데 자백과 상반된 진술



1971년 1월 위조여권을 이용해 출국했던 이수근이 캄보디아로 향하던 중 중정 직원들에게 체포된 뒤 김포공항으로 압송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을 했음에도 확인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졸속으로 재판이 종결됐다”며 “이수근이 항소할 의사를 밝혔음에도 형소가 이뤄지지 않고 사형이 집행돼 절차상 심각한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수근이 귀순했을 때 중정이 징착금을 주고 결혼을 허용한 점이나 당시 북한의 반응에 비춰 위장귀순이라고 볼 근거가 없으며 국가 기밀을 북한에 편지로 발송했다고 자백했다는 진술의 일관성이 없었다.

또 이수근을 베트남에서 체포한 뒤 중정으로 압송, 11일간 구속영장 없이 불법구금했는데 이는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위원회는 말했다.

위원회는 “이번 사건은 이수근이 중정의 지나친 감시와 북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걱정으로 한국을 탈출하자 중정이 당혹한 나머지 위장간첩으로 조작, 처형해 귀순자의 생명권을 박탈한 비인도적, 반민주적 인권유린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전세계인 절반

“미래세계 불안”

다음 세대가 지금의 세대보다 더 불안전한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난 한해 동안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경제포럼(WEF)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 인터내셔널에 의뢰, 전세계 60개국의 5만5천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8%가 다음 세대는 더 또는 훨씬 더 불안정한 세계에서 살 것이라고 대답했다. 지난 해 1월 동일한 조사에서는 그 같은 응답자는 30%였으며, 난관론자는 35%였다.

이번 여론 조사는 유럽인과 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비관적 견해를 주도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특히 지난 한해 동안 중동 지역의 분위기는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는 전했다.

“6·25 참전 華僑 위령비 세워달라”

미국 이주 韓華단체…국방부 “기록 없다” 반박

한국전쟁에 참전하고도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던 화교들의 넋을 기리는 위령비를 한국내 국립묘지에 세우려는 움직임이 미국에서 나타났다.

15일 산동교민회 등 한화(韓華: 한국에서 살다 미국으로 건너온 화교)

단체 등에 따르면 한국전쟁에 참전한 화교는 대략 125명으로 추정되고 이들 중 일부는 한국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기도 했지만 국방부는 화교 참전자들의 공식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상요구를 명시해 보낸 것은 9월 이후 3차례”라고 말했다.

북한은 이 같은 KEDO 측의 협의회 개최 요구는 물론이고 보상 요청에도 아직까지 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아스피린, 천식 예방 효과

아스피린이 성인 천식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하버드대학 의과대학 브리검 부인병원의 토비아스 쿠스 박사는 의학전문지 ‘호흡기-응급의학 저널’ 1월호에 발표한 연구논문에서 심장병 예방을 위해 저단위 아스피린을 매일 복용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천식 위험이 22% 낮다고 밝힌 것으로 헬스데이 뉴스가 15일 보도했다.

쿠스 박사는 의사건강조사(PHS)에 참가하고 있는 남성의사 2만2천71명(40~84세)를 대상으로 심장병 예방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매일 아스피린 325mg짜리 한 알 또는 위약을 5년동안 복용하게 한 결과 아스피린 그룹이 대조군에 비해 심장마비 위험이 44% 감소되는 외에 천식발생률도 22%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비만 예방 ‘껌’ 가능할까?

언젠가는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껌이 개발될지도 모른다는 영국의 BBC인터넷판이 15일 보도했다.

영국 런던 임페리얼 대학의 스티브 블룸 박사는 실컷 먹었을 때 만복감을 느끼게 하는 장(腸) 내 분비호르몬인 케장폴리펩타이드(PP: Pancreatic Polypeptide)와 유사한 약물을 개발하고 있으며 5~8년 안에 주사제로, 궁극적으로는 껌이나 코 스프레이 형태로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 박사는 아직 비만인 사람에게는 시험해 보지 않았지만 약간 과체중인 사람 35명을 대상으로 일부에게는 이 호르몬을, 나머지 대조군에게는 위약을 각각 주사한 뒤 풍성한 뷔페를 차려 마음껏 먹게 한 결과 호르몬이 투여된 그룹은 대조군에 비해 15~25%를 덜 먹고도 만복감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누구나 합격강의
9월 공무원시험 대비 특강**

국가직 행정직 세무직 교정직
광주·전남 농업직 소방직
서울지방직 경찰직 기술직
2007년 4월 14일
총개사 전문강의 17년!!

전남고시학원 전남여고맞은편 222-5105

중개사 특강
20명 정원
소수 정예반
1:1 교육방식, 자습실 이용
전남고시학원 전남여고맞은편 222-5105

**최고의 합격률을 자랑하는
김재규 경찰학원**

KPA 회원 2006년 1차 최종합격 총 156명
2006년 2차 최종합격 총 142명

1일 15일 개강 (수시접수)
① 6개월 / 1년 학회제
② 2개월 이론증합반
③ 문제풀이반 (매일 일과)
④ 유호제풀이+교토영어 수강

**노랑진에서 강의하는 교수진 그대로
광주에서 강의합니다.**

경찰학원	형 법	형사소송법
김재규 교수	조태열 교수	윤경근 교수
수사	영어	영어
오수평 교수	오순아 교수	김지선 교수

**2007 겨울방학
공무원 대특강**

2007년 4월 14일
국가직 시험
2007년 5월
교정공무원 사회복지직
소방공무원 보호관찰직
행정직 세무공무원 교육행정직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
222-4560

상가·사무실 임대

위치: 유동로 터리 30m 도보면, 상업지역
5층 건물(4, 5층 임대 외), 각 층당 165평(분할 가능)
임대보증금의 50%, 은행대출 알선
용도: 병원, 전시장, 학원, 사옥, 사무실, 대형 병원
대형 식당 등 다양도 가능
임대가는 상담후 결정

문의 528-1031, H.P 016-609-1031, 017-609-7968, 010-7623-1100

www.kjkimyoung.co.kr
2008년 1월 시행대비 1학년 대비반 개강
개강: 1월 8일
김윤신 초등교육과정 개강 1월 11일(목)
의/치의학, 한의학 전문대학원 대비반 개강 1월 8일
김영대학원 입학원 227-8088